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암 종류 따라 차이... 재발여부 추적엔 탁월



전남대 치과병원 '현대미술 초대전'

내년 2월까지 1층 로비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원장 박상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오희균)이 공동주최하는 '현대미술 특별기획 초대전'이 내년 2월까지 치과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사진> 치과병원 및 임상교육관 개원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아름다운 예술의 하모니' 주제로 이규환씨 등 12명의 화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전시에 참여한 화가들은 치과병원 개원을 축하하는 의미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기증해 교직원과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고 3 수험생 대상 '음주문제 예방 교육'

다사랑 알코올 상담센터

광주 다사랑 알코올 상담센터(센터장 황인복)가 수능시험이 끝난 고 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주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소년 음주

방법과 음주 자가진단, 가상을 주체할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정신과 전문의, 약물상담 전문가의 특강도 펼쳐진다. 상담센터는 신청학교를 전화로 접수받고 있으며 교육은 전액 무료이다. 문의전화 062-654-3802~3번

조선대병원 김현숙 교수 학술상 수상

류마티스 연구 성과

조선대병원 김현숙(사진)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지난 21일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류마티스 활막 세포에서 Plexin A1의 발현과 기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대한류마티스학회지에 발표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올해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발생된 림프부종'에 연구논문을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하는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있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민정준 교수>

대형병원의 PET(양전자 단층촬영기) 검사센터가 붐비고 있다. PET가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온몸의 암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 때문이다. 연말을 맞아 부모님께 효도용 PET 검진을 권유하는 사람까지 늘면서 PET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다. 남성 4명 중 1명, 여성 5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PET는 매력적인 검진법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PET도 모든 암을 진단해 내는 것은 아니다. 전남대학교병원 민정준 핵의학과의 도움말로 PET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자.

■ 꿈의 암 검진기 'PET' 오해와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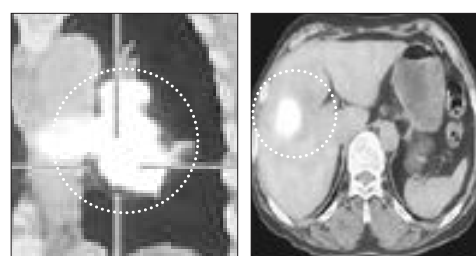
폐·대장·췌장·자궁·난소·갑상선 암 90% 조기 발견
전립선·위암 진단을 낮고 당뇨 있는 사람 검사 어려워

◇PET란=지난 199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PET는 현재 전국에 90여대가 보급돼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첨단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7곳의 대형병원이 PET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우리 몸 안의 여러 대사과정을 영상화하는 장비인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 몸의 포도당대사를 촬영하는 '포도당 PET'이다. 몸 안 세포들의 포도당 대사 정도를 영상으로 찍어 대사가 높은 세포와 낮은 세포를 구별한다. 이 PET에 CT(컴퓨터 단층촬영기) 촬영기를 붙여서 만든 것이 PET-CT다. PET로 대사가 높아진 부위를 알아내고 CT로 부위를 확인하는 검사기다. ◇어떤 환자에게 유용한가=PET는 암 환자

의 진단에 가장 유용하다. 암세포는 포도당 대사가 증가돼 있기 때문에 PET를 이용하면 쉽게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다. 암 진단 중에도 환자가 수술이나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재발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은 그 어떤 진단기보다 탁월하다. 암은 기본에 발생했던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전신을 짧은 시간에 스캔할 수 있고 진단율이 높은 PET가 가장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PET가 일차 암 검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PET는 짧은 시간에 전신검사가 가능하고(15~30분), 전체적인 진단율이 85~90% 정도 되는 가장 매력적인 검사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로 폐암, 대장암, 직장암, 두경부암, 자궁암, 림프종, 갑상선 암, 췌장암, 담관암,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PET를 이용해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PET 앞 외에도 치매와 심근경색 진단에 유용



'꿈의 검진기'라고 알려진 'PET'는 암 진단에 가장 유용한 장비지만 위암과 전립선암 등 종류에 따라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제공>



폐암환자 PET(왼쪽)와 간암환자 PET.

하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에 유용성이 입증됐고, 심근경색 환자에서 심장수술로 살릴 수 있는 심근부위를 예측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뼈 스캔으로 암의 뼈 전이부위를 찾아내던 검사도 PET를 이용한 뼈 스캔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모든 암을 진단할 수 있나=이 세상에 암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에 진단해내는 방법은 아직 없다. PET도 마찬가지 모든 암을 다 찾아내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위암의 경우는 진단이 어렵고, 위내시경보다 진단 정확도가 훨씬 떨어진다.

전립선암의 PET 진단율은 낮은 편이다. 최근 '포도당 PET'이 아닌 '콜린 PET', '지방산 PET'의 유효한 진단능력이 입증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폐암 중에서 기관지 폐포암도 PET 검사에서 찾아내기 어렵다. 알려진 것과 달리 0.5cm 이하인 종양의 발견도 어렵고, 특히 작은 크기의 뇌종양과 간암의 진단율도 떨어진다. 또한 당뇨가 있거나 정상보다 혈액의 당 농도가 높은 사람은 검사가 어렵다. 검사에 사용되는 약품이 피 속의 당 성분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100만원 안팎으로 비싼 검사비용과 반복적인 방사선 노출 역시 PET 검사를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들이다. 민 교수는 "일반적인 PET 검사는 다른 검사 과정에서 '혹'이 발견됐을 때 암인지 여부와 병의 진행 정도를 정하고, 치료 후 재발 여부를 검사하는데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민정준 전남대병원 핵의학과의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건보, 지역 가입자 소득에 따라 보험료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병식)는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00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보는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8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등 최근의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는 국제청과 지자체에서 전년도 귀속분 소득과 해당 연도 재산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조정하게 되며, 가입자는 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만큼 보험료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 보험료 조정신청이나 민원사항은 국번없이 1577-1000번으로 하면 된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남 응급환자 치료 쉬워진다

종합병원 6곳 특성화 센터 지정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고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폐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광주·전남지역 6곳을 포함 비수도권 13개 시·도 76곳의 종합병원을 중증 응급질환 전문 특성화센터로 지정해 뇌·심혈관 질환 등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과 목포한곡병원, 순천 성가톨릭병원 이 뇌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특성화센터로 지정됐다. 또 조선대병원과 목포중앙병원에는 뇌·심장질환 2개 분야, 화순전남대병원에는 뇌와 중증외상 2개 분야 특성화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theaters like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and 제일시네마. It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 for each theater.